DBpia

[원효 탄생 1400주년] 보편성과 차별성의 공존
원효의 화해 사상의 재조명

저자
(Authors)
이수미

출처
(Source)
지식의 지평 (23), 2017.11, 1-9(9 pages)
Orbis Sapientiae (23), 2017.11, 1-9(9 pages)

발행처
(Publisher)
대우재단
daewoofound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284479

APA Style
이수미 (2017). [원효 탄생 1400주년] 보편성과 차별성의 공존. 지식의 지평(23), 1-9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7/11 14:57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보편성과 차별성의 공존
: 원효의 화해 사상의 재조명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이 수 미

1. 들어가는 말

현대 한국인에게 원효(元曉, 617~686)는 한국을 대표하는 고승으로 친숙하다. 원효는 해골물을 마시고 깨달음을 얻었다거나 요석공주와 파계를 행하였다는 극적인 일화를 통해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원효가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인물로 여겨져 온 것은 서로 상반하는 견해·주장들의 화해나 조화를 추구한 그의 화합적 불교 사상 때문이다. 이러한 원효의 화해·조화의 불교 사상은 보통 '회통불교(會通佛敎)' 혹은 '통불교(通佛敎)'[1]로 불리

[1] 1930년대에 최남선(1890~1957)이 미국에서 열린 범태평양불교청년대회(The First General Conference of Pan-Pacific Young Buddhist Associations)에서 인도 불교를 서론 불교, 중국 불교를 각론 불교, 한국 불교를 결론 불교로 주장하였고, 이와 함께 한국 불교를 회통불교(會通佛敎) 또는 통불교(通佛敎)로 규정했다. 그 뒤로 한국 불교의 특징으로서 회통성은 일제강점기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11 14:57(KST)

는 한국 고유의 불교 사상의 틀 속에서 이해되어 왔다. 한국 불교 전통에는 대립하는 사상과 견해들을 회통하고 종합하는 특징이 있다고 보고, 원효의 화해·화합의 사상을 그 대표적 전형으로 여기는 것이다.

하지만 원효의 화해 사상을 '회통불교' 틀을 통해 이해하는 것이 정당한지는 재고할 여지가 있는 문제이다. 1980년대 이후 한국 불교학계에서는 한국 불교의 '회통성'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다. 동아시아 불교사, 아니 전 불교사를 통틀어 살펴보면 화합을 추구한 불교인들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데 회통불교를 과연 한국 불교만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2] 게다가 통불교를 한국 불교만의 특징이라고 하는 주장은 일제강점기에 민족 주체성을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노력의 배후에는 민족주의라는 이데올로기적 요소가 내재한다고 지적되었다. 회통불교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대두하자 통불교의 선두주자로서 그 전형을 제공한 원효의 사상도 재조명을 받기 시작하였다. 사실 원효가 한국 불교의 대표적 고승으로 지목된 것은 항일운동이 활발하던 근대 이후이다. 비록 원효가 당시 동아시아 불교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이지만, 고려 후기부터는 원효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줄어들어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원효에 대한 언급이나 인용이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원효 사상을 통불교의 틀로 재단해 온 것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재고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회통불교의 자체적 한계점과 원효의 위상 정립에 내재한 이데올로기적 요소에 대한 이러한 근래의 비판으로 인해 원효의 화해 사상은 그 의미를 상실하고 마는가? 원효의 화해의 불교 사상은 단지 시대적 이데올

를 거쳐 해방 이후까지 많은 공감을 얻어 왔다.

[2] 이에 대한 논문으로는 Shim Jaeryong, "O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Korean Buddhism-Is Korean Buddhism Syncretic?,"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2*(1989); 조은수, 「'통불교' 담론을 중심으로 본 한국불교사 인식」, 《불교평론》 21(2004); Pankaj N. Mohan, "Beyond the 'nation-Protecting' Paradigm: Recent Trends in the Historical Studies of Korean Buddhism,"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9(1)(2009) 등이 있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11 14:57(KST)

로기에 부응한 재해석에 지나지 않는가? 필자는 기존의 모든 비판에도 불구하고 원효의 화해 사상이 여전히 불교사적 중요성과 학문적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러한 비판과 성찰의 과정이 원효 사상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조건이자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이데올로기적 통불교 요소를 떨쳐 버리고 냉정하게 원효 사상의 의미와 가치를 물을 수 있어야 비로소 시대를 초월하는 원효 사상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재점검할 수 있는 것이다. 통불교가 한국 불교만의 특징이 아니라면 원효의 화해 사상만의 특징은 무엇인지, 원효가 전 불교사에 걸쳐 주목받지 않았다면 이 화해 사상이 지속적으로 유효하지 않던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앞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다. 문제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이때, 필자는 원효의 불교 사상이 여전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철학적·도덕적 함의를 간략하게나마 짚어 보려 한다.

2. 다양한 가르침들의 공존: 화쟁 사상

인도에서 석가모니 부처에 의해 시작된 불교는 수세기에 걸쳐 발전하면서 여러 단계의 사상적 변화를 겪었다. 부처의 가르침을 주석적으로 해석하면서 발전한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자아'를 비실재로 여긴 반면, 일체 현상의 기본적 단위인 '법'을 실재로 간주했다. 하지만 수세기 후에 발달한 대승불교 가운데 중관학파에서는 '자아'뿐 아니라 '법'의 실재성까지 부정하는 '일체개공(一切皆空)'설을 주장하였다. 한편, 또 다른 대승학파인 유식학파에서는 오로지 '식(識)'만이 실재한다고 설하였다. 인도 불교 내부에서는 이와 같은 불교 가르침의 변천과 발달이 그 역사적 맥락 내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동아시아로 인도의 불교 경전이 번역되어 전래될 때에는 이러한 역사적·사상적 맥락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즉, 여러 시대에 걸쳐 만들어진 불교 경전들이 모두 부처의 가르침으로서 한꺼번에 비체계적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서로 상반하는 주장들로 가득 차 있는 듯이 보이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11 14:57(KST)

는 불교 경전들의 이론적 불일치를 정합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동아시아인들이 풀어야 하는 공통된 과제였다.

원효의 시대는 이러한 사상적 혼란기를 또다시 맞이하고 있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삼장법사 현장(玄奘, 602~664)이 645년에 인도에서 새로운 불경을 도입한 이래 과거의 사상 체계와 모순되거나 상이한 이론들이 소개되었고 이에 따라 교리 간의 상이점을 둘러싸고 논쟁적 상황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空)을 설하는 중관 사상과 유(有)를 설하는 유식 사상 간의 공유 논쟁이 있었고, 부처의 성품, 즉 불성(佛性)이 모든 중생에게 보편적으로 있는지, 아니면 일부 중생에게만 있는지 논하는 불성 논쟁이 있었다.

인도에서 전해진 불교 교리 간의 사상적 모순을 설명하기 위해 동아시아인들이 고안하였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방법은 교판(敎判)이나 판교(判敎)라고 불리는 분류 체계이다. 즉, 부처가 각 대상의 다양한 능력과 조건에 상응하여 상이한 가르침을 편 것이라는 관점에서 가르침의 종류를 분류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대상의 차별성에 근거를 두어 가르침을 분류하는 판교의 방식은 흔히 대상에 따라 불교의 가르침, 즉 경전들을 위계화하는 경향이 있다. 즉, 가장 열등한 가르침에서 가장 뛰어난 가르침까지 층차적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원효와 동시대인인 중국의 화엄논사 법장(法藏, 643~712)은 불경의 가르침을 소승교(小乘敎), 대승시교(大乘始敎), 대승종교(大乘終敎), 돈교(頓敎), 원교(圓敎)라는 다섯 단계로 분류하여 대상에 따른 가르침의 순차적 우열을 내포하는 체계를 세웠다. 이 체계에서 가장 상위인 원교는『화엄경』의 가르침으로서, 이 단계에서는 다른 모든 하위 가르침이 포섭되어 완전히 일체를 이루므로 더 이상 하위의 가르침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원효는 수많은 불경들에 나타난 가르침의 상위성(相違性)을 위계적인 층차로써 설명하지 않는다. 다만 전통적인 분류인 소승과 대승의 구분을 받아들일 뿐이며, 대승의 영역에서는 모든 경전이 동등하게 완전한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11 14:57(KST)

가르침이라고 한다. 즉, 특정 경전을 최상위에 두지 않고. 다양한 가르침들이 상호 모순되지 않고 함께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모든 대승 경전을 완전한 가르침이라고 본다고 해서 이 가르침들이 모두 차별 없이 동일하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원효는 각 가르침의 차별성을 그대로 인정하여 받아들인다. 예를 들면 원효도 법장과 마찬가지로 『화엄경』이 현상의 궁극적 조화의 상태를 설한다고 보았다. 모든 현상에 궁극적으로 '보법(普法)'이나 '일심(一心)'이라고 불리는 보편적인 동질성이 있다고 여겼으며, 이 보법의 완전한 구현을 설하는 것이 『화엄경』이라고 보았다. 다시 말해 원효는 궁극적 실재인 보법의 완성을 설하는 경전이라는 점에서 『화엄경』이 가장 뛰어난 가르침을 설한다고 인지했다. 그렇지만 그는 다른 대승 경전의 가르침들이 『화엄경』의 가르침에 비해 열등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화엄경』에 포섭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다른 경전들도 각 대상에 부합하는 가르침을 설하므로 깨달음의 길에 있어서는 『화엄경』과 동등한 중요성이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 원효는 비록 깨달음의 과정에 있어서 경전 간 가르침의 단계적 차별성을 인지하지만, 이른바 뛰어난 가르침이 열등한 가르침을 대체할 수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원효는 대상에 대응하는 각 가르침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대승의 모든 경전은 결국 동일하게 완전하므로 가르침들이 모두 인정되고 공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원효는 불교계의 상반하는 입장들을 『십문화쟁론(十門和諍論)』이라는 저술에서 화해시키고 있다. 이 저술은 많은 부분이 일실되어 전체적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다음과 같은 주제를 다룬다. 모든 현상의 성질이 공(空)인지 유(有)인지 논하는 문제, 모든 중생에게 불성(佛性), 즉 부처의 성품이 있는지 아니면 일부의 중생에게만 있는지 논하는 문제, 부처의 공덕(功德)은 생겨나는 것인지 본래 있는 것인지를 논하는 문제 등이다. 원효는 이 입장들의 상충성은 각 경전의 목적이나 조술자의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모순되는 입장들이 아니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11 14:57(KST)

라고 한다. 여러 상이한 가르침이나 이에 바탕을 둔 주장들은 그 목적이나 관점에 따라 각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비록 모순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는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 이런 점에서 개별 경전에 집착하여 다른 경전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라고도 한다. 이는 마치 장님들이 각기 코끼리를 만지고서 각자가 파악한 코끼리의 모습만이 옳은 것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 부분적 의미들이 상호 보완될 때 전체적인 코끼리의 모습을 알 수 있다고 한다. 만약 한 가지 주장만이 옳다고 할 경우에는 각 주장이 모두 옳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상보적으로 파악할 경우 개별적 주장들은 모두 부처의 가르침을 근거로 하므로 옳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3. 『대승기신론』의 '비일비이(非一非異)'의 화합 사상과 원효

원효의 화해 사상의 철학적·종교적 바탕은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에 대한 그의 해석에서 찾을 수 있다. 동아시아 불교 전통에 있어서 핵심적 논서 중 하나인 『기신론』은 6세기 중엽 무렵 북중국에서 나타났다. 하지만 『기신론』이 동아시아에서 널리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이 논서가 등장한 후 1세기가 지나 원효가 그 주석서인 『기신론소(起信論疏)』와 『대승기신론별기(大乘起信論別記)』를 저술한 이후이다. 원효의 사상은 『기신론』을 바탕으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이와 같이 원효 사상의 주요한 근간을 이루는 『기신론』의 핵심 사상은 바로 '화합(和合)'이다.

『기신론』의 화합설은 논의 '일심이문(一心二門)'이라는 구도에 잘 나타나 있다. '일심(一心),' 즉 궁극적 실재는 '이문(二門),' 즉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실재의 궁극적 측면인 '진여문(眞如門)'과 현상적 측면인 '생멸문(生滅門)'을 말한다. 실재의 궁극적 측면인 불생불멸의 진여(여래장)와 현상적 측면인 생멸심은 서로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닌 상태로(非一非異) 화합하는데, 이것이 바로 중생의 근본식인 '알라야식(阿梨耶識)'이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11 14:57(KST)

다.[3] 중생은 현상의 세계에 속하고 중생의 생멸하는 마음도 현상의 세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불생불멸의 궁극적 실재와 맞닿아 있다는 것이다.

원효가 주목한 것은 바로 이 실재의 궁극적 측면과 현상적 측면의 화합이다. 실재의 궁극적 측면과 현상적 측면이 같지도 다르지도 않은 상태로 화합하고 있다면, 모든 현상은 궁극적 차원에서 볼 때에는 동질성이 있는 한편 현상적 측면에서는 현상 자체의 차별성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할 수 있다. 궁극적 차원과 현상적 차원이 같지도 다르지도 않고 이에 따라 사물의 동질성과 차별성을 동시에 인정할 수 있다면, 모든 상이한 주장이나 견해들의 모순 역시 궁극적 동질성 내에서는 화해할 수 있다. 원효가 불교 이론의 모순적 상이성을 화해시킬 수 있었던 것은, 실재의 궁극적 차원과 현상적 차원을 서로 분리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얽매임 없는(不羈)' 사유 체계 덕분이다.

원효의 얽매이지 않는 사상 체계는 '무애행(無碍行)'으로 알려진 그의 행적에 그대로 나타난다. 원효는 출가 수행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환속한 거사이기도 하였다. 또 학승으로서 불교의 심오한 교리에 대한 수많은 저술을 남겼지만, 한편으로 저잣거리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대중을 직접 교화하기도 하였다. 다시 말해 원효는 어떠한 규범과 틀에도 얽매이지 않았으며, 진(眞)과 속(俗)이 둘이 아니고 출세간과 세간이 분리되지 않은 삶을 살았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경계를 뛰어넘는 원효의 무애행을 종종 방임적 무도덕주의(antinomianism)나 피상적인 상대주의(relativism)로 오해한다는 것이다. 엄격한 비판을 전제로 하는 원효의 무애행은 중생제도라는 궁극적 목적이 있는 이타행인 반면, 어떠한 사고방식이나 행동도 허용하는 무도덕주의나 모든 것을 마찬가지라 보는 상대주의는 이타적 정신과는

[3] 心生滅者, 依如來藏故有生滅心, 所謂不生不滅與生滅和合, 非一非異, 名 阿梨耶識(大乘起信論 T1666:32.576b07~09).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11 14:57(KST)

아무 관계가 없다. 원효의 무애행은 성(聖)과 속(俗)을 넘나드는 평등의 경지에서 필연적 귀결로서 얻은 보살행인 것이다.

4. 맺는말

원효는 진과 속을 넘나드는 자유로운 사고 체계를 통해 상반하는 것으로 여겨지던 불교 교리들을 조화시킨 화쟁의 논사였다. 필자는 이 글의 서두에서 원효의 사상에 대한 이해가 통불교의 틀에서 벗어나야 함을 주장했는데, 이것은 원효의 화해 사상과 통불교 사상의 근본적 입장 차이를 살펴볼 때에도 드러난다. 원효의 화해 사상은 각각의 입장들이 상반하더라도 개별적 중요성과 필요성에 근거를 두어 모두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는 반면, 민족 주체성의 정립이라는 목적을 지향하는 통불교는 필연적으로 타민족, 즉 일제의 불교에 대한 배타적 태도를 전제로 한다. 원효는 옷을 기울 때는 긴 창이 아니라 짧은 바늘이 필요하고 비를 피할 때는 온 하늘을 덮는 것보다는 작은 우산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 근성을 따라 크고 작은 것이 다 보배"라고 보았다. 각 입장 자체의 개별적 필요성을 인정한 원효가 민족주의적 통불교의 입장, 즉 다른 전통을 배타적으로 대하면서 자신만을 가장 뛰어난 불교 전통으로 내세우는 입장을 옹호하였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통불교 사상은 어디까지나 일본 불교나 일본 전통과 구별되는 한국 특유의 사상을 찾는 과정에서 고안되었으며, 타 전통을 능가하는 한국 전통의 위상을 찾는 것이 근본 목적이었다. 이러한 자문화 중심적인 배타적 틀 속에서 원효의 다원적이고 포용적인 화해설을 설명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역설적이지만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한국 불교의 전통을 찾으면 찾을수록 원효의 화해 사상에 나타난 한국 불교의 고유성은 구할 수 없는 듯하다. 오히려 다양한 전통들의 공존을 이야기할 때 원효의 화해 사상뿐 아니라 나아가 한국 불교의 고유성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11 14:57(KST)

이 수 미

현재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HK연구초빙교수. 서울대학교 철학과 석사 학위를 받은 뒤, 미국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과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에서 동아시아 불교로 각각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7년 한국불교학회 주관 원효 1400주년 기념 불교학술진흥상 공모전에서 「『金光明經』의 三身說에 대한 元曉의 이해: 慈恩基와 淨影慧遠과의 비교고찰을 통하여」로 대상을 수상하였다. 학술 논문으로는 「동아시아에서의 『대승기신론』 해석의 전개」(2016), "Redefining the 'Dharma Characteristics School' and East Asian Yogācāra Buddhism"(2015) 등 다수가 있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11 14:57(KST)